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와이엠씨(155650)

IT부품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 기관

(주)NICE디앤비

작 성 자

정대관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3.04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와이엠씨(155650)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제조기업,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사업 공략

기업정보(2021/12/17 기준)

대표자	이윤용
설립일자	2008년 02월 12일
상장일자	2012년 11월 1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소재·부품

시세정보(2021/12/17 기준)

현재가	7,36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470억원
발행주식수	19,974,358주
52주 최고가	10,650원
52주 최저가	6,700원
외국인지분율	2.39%
주요주주	
이윤용 외 1인	31.35%
자사주	6.34%

■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제조 기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통해 매출 성장

와이엠씨(이하 동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요한 소재·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통해 용역사업 부문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 중 중착공정에서 필요한 배선재의 재료인 Target과 관련 부품인 Backing Plate를 주요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이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또한, 동사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장비용 부품, 반도체 중착장비용 부품 등을 개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로 지속 성장 전망

최근 프리미엄 제품인 대형 TV용 패널,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OLED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우 LCD 제조설비를 OLED 제조설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LCD, OLED 제조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제품 다각화를 통해 LCD, OLED,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모두 생산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OLED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 점은 고려 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은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LCD 제조설비 해체 신규계약을 통한 실적 개선 및 이설 수주 기대

동사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주)와 2021년 4월 204.9억 원, 2021년 7월 647.0억 원 규모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통해 매출액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계약의 규모는 작년 매출액 대비 58.4%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계약은 해체 외 이설 수주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체 작업을 진행한 동사가 이설 사업의 유력 선정업체로 기대되고 있다.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설비는 기존 진행한 L5, L6 제조설비 대비 장비가 크고, 무거워 수주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408.7	56.4	221.4	9.2	159.6	6.6	19.9	7.8	100.9	805	-	8.0	-
2019	1,670.7	-30.6	-59.2	-3.5	-14.1	-0.8	-2.0	-0.9	54.1	-81	-	N/A	-
2020	1,458.0	-12.7	106.3	7.3	80.0	5.5	9.1	6.5	27.7	378	-	23.5	-



기업경쟁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기술 확보

- 연구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 제조기술 확보
- 삼성전자(주)와 구매조건부 협약을 통해 대형 패널전용 Backing Plate 개발 및 장비와의 정합성 확보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이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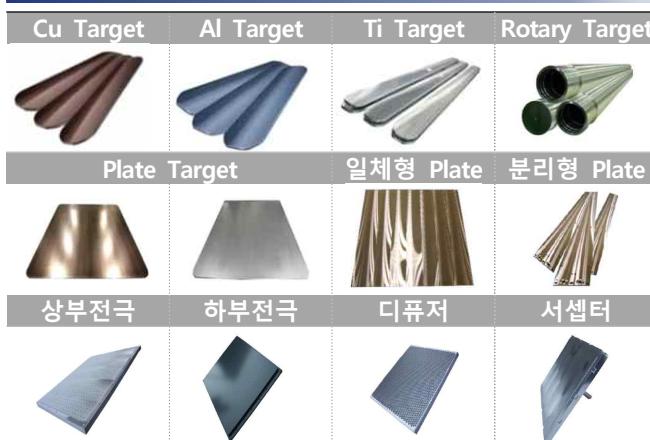
- 2016년~2020년 총 3,620억 원 규모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진행
- 다수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이력을 통해 동사의 기술력 검증

핵심기술 및 사업 현황

핵심기술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Target, Backing Plate 등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력 확보
- 소재·부품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정전 척,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등의 신제품 개발완료
- 국내 유일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 보유업체

적용제품



시장경쟁력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20년	1,155억 달러	연평균 5.5% ▲
2025년(E)	1,508억 달러	(CAGR 적용)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제품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LCD	2017년	180.5억 달러	연평균 26.8% ▼ (CAGR 적용)
	2020년	50.7억 달러	
OLED	2017년	93.3억 달러	연평균 5.3% ▲ (CAGR 적용)
	2021년	100.7억 달러	

프리미엄 시장 확대로 인한 지속 성장 기대

- 대형패널, 룰러블 TV,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지속 성장 추세
-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어 두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

확보된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으로 매출 회복

- 2021년 9월 말 기준, LCD 제조설비 해체 등의 용역 매출 관련 수주 잔액은 567.1억 원으로, 2021년 4분기에도 매출실적은 회복 전망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영영을 실천하여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음.
- 동사는 기업 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겸임 담당자를 선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동사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음.
- 동사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인정받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휴게실 및 구내식당 보유, 기숙사 및 통근버스 운영 등의 지원으로 임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자녀학자금 지원, 우수 근로자 포상 제도, 명절, 기념일 선물지급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헌 활동 이어가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1.3%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공정용 소재·부품 제조 및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 완료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Target, Backing plate 등을 개발하여 삼성디스플레이(주)에 지속적인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 2021년 7월 삼성전자(주)와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완료하였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2008년 2월 설립 이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 제조,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설립 초기 디스플레이 패널 세정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2008년부터 Target과 Backing plate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개발에서용하여 삼성전자(주)에 제품 공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동사는 2016년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을 수주하며 매출 급성장을 이루었고,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 편입하였다. 동사는 제품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영업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삼성전자(주)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사 최대주주는 창립자인 이윤용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의 지분율은 2021년 12월 기준 31.35%로 확인된다. 한편, 동사는 종속회사로 (주)와이컴, 와이엠피(주), 와이엠에스(주)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계열회사

계열사	최대주주	최대주주 지분율	소재지
(주)와이컴	와이엠씨(주)	48%	경기도 안성시
와이엠피(주)	(주)와이컴	63%	경기도 안성시
와이엠에스(주)	와이엠씨(주)	100%	충청남도 아산시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사업영역 관련 제품

동사는 2008년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에서 필요한 배선재의 재료인 Target과 관련 부품인 Backing Plate를 국산화하며 소재·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박막용 고정기술은 국내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나, 박막을 위한 Target 소재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퍼터링¹⁾ 장비에 장착됨에 따라 장비와의 정합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퍼터링 장비는 소재·부품과 함께 수입되어 국내 업체들이 정합성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동사는 삼성전자(주)와 구매조건부 협약을 통해 2009년 Backing Plate 설계 기술, 장비와의 정합성 확보 기술 등의 기술력을 정립하였다. Backing Plate는 Target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고정장치이지만, 공정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부품이다.

1) 스퍼터링(Sputtering): 이온화된 원자를 전기장에 의해 가속 시켜 피복물질에 증착하는 방법



동사의 Backing Plate 소재는 전기 및 열전도가 높은 구리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리의 경우 정밀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모된 Target에 장착된 Backing Plate는 대부분 재생이 가능해 새로운 Target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Backing Plate는 스퍼터링 챔버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사용 교체 주기는 약 8~9년 정도(가동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로 추산되고 있으나, 매년 일정량의 교체 수요가 있고, 신규 제조설비가 구축되는 경우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동사는 2008년 PVD 증착 방법 중 스퍼터링 방법에서 박막재로 사용되는 TFT²⁾-Array용 금속 배선재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0년 개발에 성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동사는 2009년까지 주요 Target 소재로 사용되던 알루미늄 소재를 양산화에 성공하였고, 이후 전도성이 우수하고 화면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구리가 주요 소재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구리소재 제품 양산을 진행하였다. 동사는 처음 알루미늄 소재로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구리, 타이타늄, 몰리브덴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적합한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그림 1] 동사가 양산하고 있는 Target 소재 및 Backing Plate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 09)

TFT 제조공정 중 건식식각³⁾ 공정의 진행을 위해서는 대형 기판을 평탄하고 균일하게 하부 전극에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판을 하부 전극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기계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기판의 대형화로 인해 정전 척⁴⁾(ESC)을 이용한 공정 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 패널이 대형화됨에 따라 동사는 고객의 장비와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LCD 제조공정 중의 하나인 건식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균일한 가스 흐름을 유지시키는 핵심부품인 상부전극과 LCD와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 내부의 정전기를 이용해 정전기의 힘만으로 기판과 전극 사이에 간격을

2)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컴퓨터나 휴대전화의 평면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

3) 건식식각(Dry Etching): 기체 플라즈마나 활성화된 기체에 의한 반응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나머지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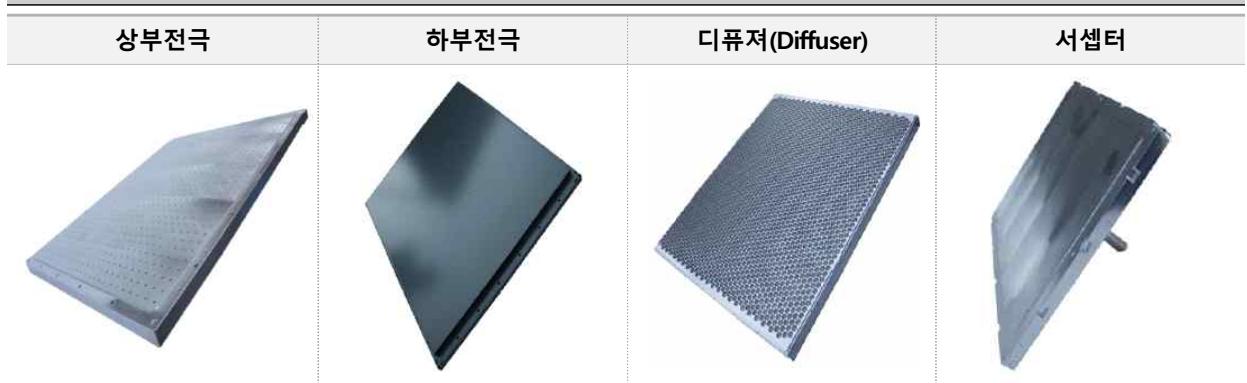
4) 정전 척(Electrostatic Chuck): 정전기의 힘을 사용해 기판을 하부 전극에 고정해 주는 핵심부품



일정하게 유지하는 하부전극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 균일한 온도전달로 패널 제조 시 대면적에서 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여 Glass가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여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셉터와, 중착 대상물인 유리기판에 균일하게 가스를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디퓨저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FPD 공정 장비 부품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 09)

동사는 2016년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CD 제조설비 해체를 시작으로, 2017년 중국 TRULY社에서 수주받은 LCD 제조설비 이설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 204억 원 규모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 후 2021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동사는 2021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주)와 647억 원 규모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기한은 2022년 5월로 공시하였다. 동사가 해체하는 LCD 제조설비는 삼성물산(주)에 당분간 보관될 예정이며, 장비 매각사가 결정되면 이설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설과 관련된 추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설 경력을 보유한 동사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현재까지 동사는 다수의 LCD 제조설비 해체, 이설, 조립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 매출실적 현황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18년 2,408.7억 원, 2019년 1,670.7억 원, 2020년 1,458.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동사의 매출액은 이설 공사 지연, 2020년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2018년 이후 매출 외형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2021년 4월, 7월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을 완료하며 2021년 3분기 누적 1,253.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 반등에 성공하였다. 동사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액은 342.1억 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부품 205.1억 원, 기타 및 상품은 173.5억 원, 용역은 532.3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매출액은 제품 기반의 사업과 용역사업에서 각각 전체 매출액 기준 57.5%, 42.5%를 차지하며 사업 부문별 고른 매출 분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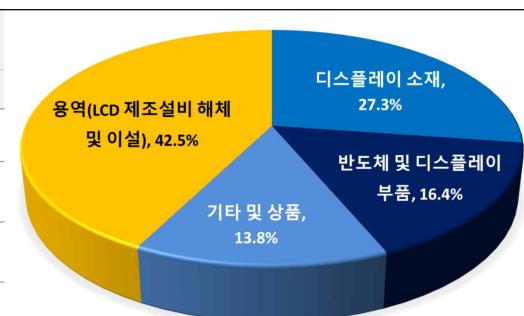


[표 2] 품목별 매출 비중

(단위: 억 원, %)

품목	2020년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디스플레이 소재	529.9	36.4	342.1	27.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245.4	16.8	205.1	16.4
기타 및 상품	182.9	12.5	173.5	13.8
용역(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499.8	34.3	532.3	42.5
합계	1,458.0	100.0	1,253.0	100.0

[그림 3] 품목별 누적 매출 비중 (단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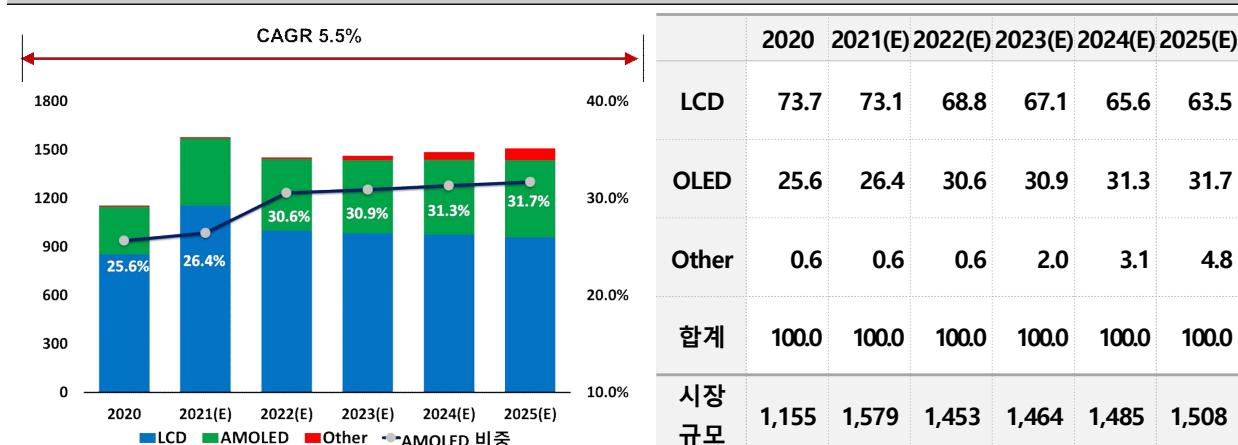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전환을 기반으로 시장규모 확대 전망

동사가 생산하는 소재·부품은 주로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COVID-19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OLED 시장 확대 등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OLED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인 대형 TV용 패널,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OMDIA, KDIA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및 전망 자료(2021년)에 따르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0년 1,15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5%로 성장하여 2025년 1,508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 OMDIA에 따르면, 19일 폴더블 OLED 출하량은 올해 1,000만 개에서 2025년 6,600만 개로 가파르게 증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의 언급한 두 가지의 시장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LCD 제품 비중은 하락하고 OLED 제품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LCD에서 OLED로 제조설비를 전환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주)의 경우, 기존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LCD 생산을 진행하던 설비를 해체하여 확보된 공간에 OLED 제조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체가 완료된 LCD 제조설비의 경우 매각업체를 선정하여 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4]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단위: 억 달러, %)



[표 3] 세계 디스플레이 제품별 비중 (단위: %)

	2020	2021(E)	2022(E)	2023(E)	2024(E)	2025(E)
LCD	73.7	73.1	68.8	67.1	65.6	63.5
OLED	25.6	26.4	30.6	30.9	31.3	31.7
Other	0.6	0.6	0.6	2.0	3.1	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장 규모	1,155	1,579	1,453	1,464	1,485	1,508

*출처: OMDIA, KDIA(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과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동사의 2020년 수출액 비중은 55.6% 내수 44.4%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용역을 제외한 제품 기준의 내수 비중은 67.7%를 보이며, 수출 대비 약 2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조사기관 OMDIA, KDIA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2017년 45.8%에서 2020년 40.1%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LCD 제조설비 철수 및 매각을 통해 LCD 제조설비를 OLED 제조설비로 전환하는 과정기에 있고, 폴더블폰, 롤러블 TV 등 프리미엄 라인이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가의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ITA, KDIA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자료에 따르면, 2017년 OLED 수출 비중은 34.1%에서 2021년 상반기 기준 66.5% 성장하며 OLED 수출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사의 경우, OLED 제품 선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주)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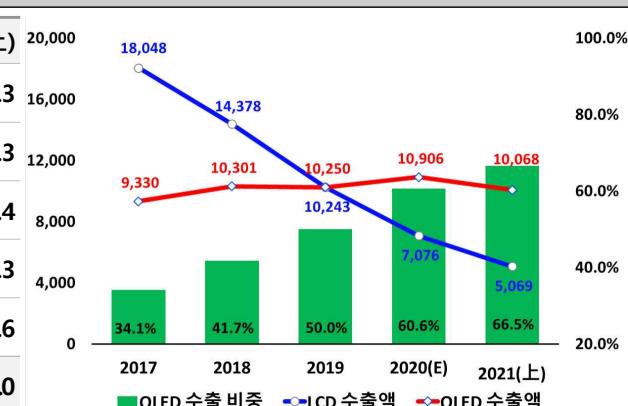
[표 4]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단위: %)

[그림 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上)
한국	45.8	44.4	42.6	40.1	34.3
중국	17.6	21.0	25.0	31.0	36.3
대만	21.3	26.2	24.4	22.0	21.4
일본	14.3	7.5	6.7	6.0	4.3
기타	0.9	0.9	1.2	1.0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OMDIA, KDIA(2021), NICE디엔비 재구성

■ 동사의 주요 경쟁사 현황

동사의 소재·부품 사업의 주요 경쟁사는 상장사 기준 (주)포인트엔지니어링, (주)위지트, (주)코미코가 있다. 국내 경쟁사의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는 1,458.0억 원, (주)포인트엔지니어링 561.7억 원, (주)위지트 300.6억 원, (주)코미코 2,008.3 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7.3%, (주)포인트엔지니어링 19.8%, (주)위지트 -4.7%, (주)코미코 17.7%로 기록하며 (주)포인트엔지니어링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사업분야 경쟁사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누적
동사	매출액	2,408.7	1,670.7	1,458.0	1,253.0
	영업이익률	9.2	-3.5	7.3	6.1
(주)포인트엔지니어링	매출액	609.4	466.6	561.7	354.9
	영업이익률	22.6	10.0	19.8	8.6
(주)위지트	매출액	447.6	316.6	300.6	234.0
	영업이익률	10.9	-3.5	-4.7	-0.5
(주)코미코	매출액	1,665.7	1,734.6	2,008.3	1,905.9
	영업이익률	24.4	19.9	17.7	23.6

- (주)포인트엔지니어링, 1998년 설립되어 차별화된 양극산화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임.
- (주)위지트, 1997년 설립되어 디스플레이 소모성 부품인 상부전극, 계측기기 등을 설계 및 생산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임.
- (주)코미코, 2003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부문인 특수 코팅, 정밀 세정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설비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미세 오염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공정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임.

*출처: 동사 및 각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및 각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6]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기업 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겸임 담당자를 선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동사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캠페인의 일환으로 냉난방기 온도 제한, 냉난방기 순환 병행 사용 권고, 이동 및 작업 간 행거 도어 닫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2019년 '깨끗하고 아름다운 테크노밸리! 우리 모두 만들어요'란 주제로 회사의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산업재해의 방지방법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2017년부터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부, 대학발전기금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사회공헌 우수기업 감사패를 받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는 직원 편의시설인 휴게실과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충처리부서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 운영, 통근버스 운영으로 임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며, 자녀학자금 지원, 우수 근로자 포상 제도, 명절 및 기념일 선물지급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반기보고서(2021.06)에 의하면 동사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12.3%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13.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약 81.8%로 산업평균인 73.4%에 상회하고,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 또한 119.5%로 산업평균인 87.0% 대비 약 32.5%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표 6]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85	-	185	4.6	6.9	33	48
여	19	-	19	5.5	6.0	27	35
합계	204	-	204	4.7	6.8	32	4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윤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의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윤리 위반행위를 제보받는 내부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내 관리조직은 감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지분구조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31.35%로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배당금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 친화 활동을 시행 중이다.



II. 재무분석

2020년 수익성 흑자전환 및 2021년 전방사업 호조를 기반으로 실적 확대 전망

COVID-19 사태 및 미중 무역분쟁 등 제한적인 전방산업으로 인해 최근 2개년간 매출 외형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을 일부 회복하였고, 최근 주력 고객사의 LCD 제조설비 해체에 따른 신규계약을 완료하며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 핵심기술 기반의 제조사업과 용역사업을 통한 수익성 유지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동사의 부문별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액 36.4%,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 부품 16.8%, 기타 및 상품 12.5%, 용역 34.3%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부속품 등 원재료를 중국 등에서 수입, 마테리온코리아(유), 자회사 (주)와이컴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의 90% 가량은 동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10% 가량은 외주처리하고 있다.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주) [거래비중: 59%], 삼성전자(주) [거래비중: 8%], 유창금속공업(주) 등을 주요 매출 거래처로 두고 있으며, 삼성계열과의 거래비중이 약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은 매출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사의 2020년 수출 비중은 55.6%[전기 67.4%] 가량을 차지하였다.

■ 최근 2개년 매출 감소세 이후, 2021년 신규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반등

2018년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수주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여 2,408.7억 원(+56.4%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통관 및 작업기간 연장과 같은 비우호적인 외부환경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2019년 전년 대비 30.6% 감소한 1,670.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0년 LCD 제조설비 이설용역 매출이 전년 889억 원에서 500억으로 389억 원 감소한 것과 COVID-19 확산 및 수출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한 1,458억 원의 매출액을 시현하며 전년에 이어 실적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21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주)와 계약금액 647억 원 규모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계약기간: ~2022.05.31.)을 체결하는 등 LCD 제조설비 이설 용역 부문의 수주 호조로 2021년 3분기 해당 사업 부문의 누적 매출액이 5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5억 원 대비 57.2%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힘입어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한 1,253.1억원을 시현한 바 금년 결산 시 일부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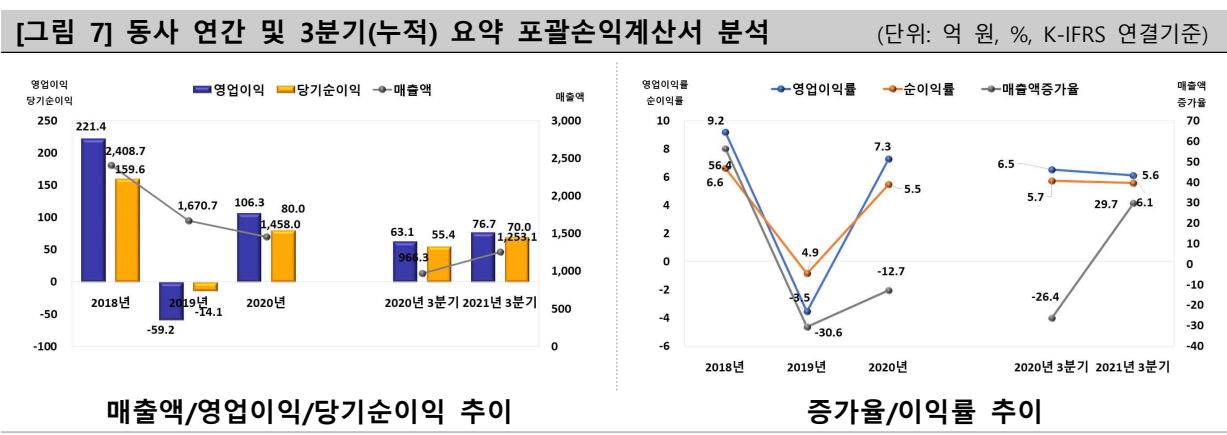
■ 2020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에도 양호한 수익성 지속

2019년 LCD 이전설치의 총 예정원가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59.2억 원, 당기순손실 14.1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 이후, 2020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부품 등 매출증가 및 이설용역 원가비율 감소 등에 따라 영업이익 106.3억 원, 당기순이익 80억 원을 시현하였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7.3%, 5.5%를 기록하며, 수익성은 흑자로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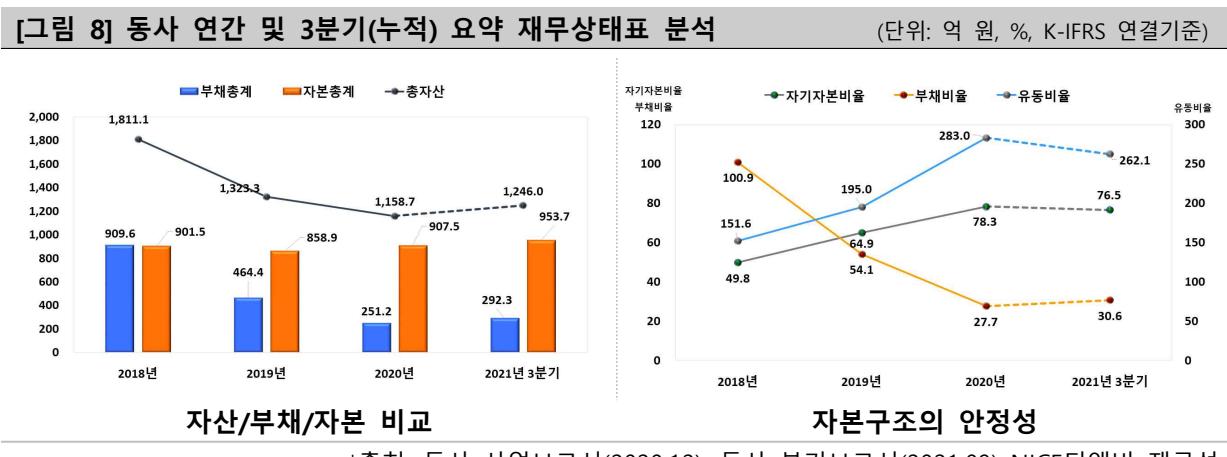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은 1,253.1억 원으로 전년 총매출액의 85.9% 수준인 가운데, 누적 영업이익 76.7억 원(+21.6% YoY), 누적 순이익 70.0억 원(+26.4% YoY)를 시현하며, 매출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수익 규모는 확대되었다. 한편,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6.1%, 매출액순이익률 5.6%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전년 동기(각각 6.5%, 5.7%)와 비슷한 수준이다.



■ 매출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는 꾸준한 개선세를 보임

2019년과 2020년 매출하락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 등 영업부채 감소로 최근 3개년 말 부채비율이 2018년 100.9%, 2019년 54.1%, 2020년 27.7%를 기록하는 등 재무안정성은 꾸준한 개선추이를 나타냈다. 또한, 동기간 유동비율은 각각 151.6%, 195.0%, 283.1%로 상승하며 유동성도 개선추이를 보였고 단기적 유동성 대응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이후, 2021년 3분기 말 기준, 매입채무 등 일시적인 영업부채 확대로 부채비율 30.6%, 자기자본비율 76.5%, 유동비율 262.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는 2020년 기말 대비 소폭 저하되었으나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의 변동은 아닌 바, 기밀과 마찬가지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2,408.7	1,670.7	1,458.0	966.3	1,253.1
매출액증가율(%)	56.4	-30.6	-12.7	-26.4	29.7
영업이익	221.4	-59.2	106.3	63.1	76.7
영업이익률(%)	9.2	-3.5	7.3	6.5	6.1
순이익	159.6	-14.1	80.0	55.4	70.0
순이익률(%)	6.6	-0.8	5.5	5.7	5.6
부채총계	909.6	464.4	251.2	339.4	292.3
자본총계	901.5	858.9	907.5	880.2	953.7
총자산	1,811.1	1,323.3	1,158.7	1,219.6	1,246.0
유동비율(%)	151.6	195.0	283.0	237.6	262.1
부채비율(%)	100.9	54.1	27.7	38.6	30.6
자기자본비율(%)	49.8	64.9	78.3	72.2	76.5
영업현금흐름	-79.7	-109.8	127.7	64.2	105.0
투자현금흐름	129.7	-47.7	-21.0	-42.5	64.8
재무현금흐름	-49.6	-46.6	-44.1	-43.8	-23.4
기말 현금	395.9	189.7	249.3	167.4	396.6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삼성디스플레이(주) LCD 제조설비 해체 수주로 2021년 매출 외형 반등 전망

동사는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경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이며, 2021년 4월, 7월 LCD 제조설비 해체 신규계약을 통해 2021년 전년 대비 사업 및 매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LCD 제조설비 해체 후 이설 사업 추가 수주 기대

동사는 국내 유일의 LCD 제조설비 해체 및 이설 업체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가 진행하는 LCD 제조설비 해체 건은 단순 해체 작업이 아닌 향후 설비 매각에 따른 이설을 대비해 정밀한 해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사가 2021년 진행한 해체 작업의 경우 이설에 대한 계약이 공시되지 않았으며, 해체를 진행하는 동사가 이설 수주를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서울경제TV 뉴스에 따르면, “올해 체결한 해체 계약의 경우 매각업체가 선정될 경우 추가 이설 수주가 발생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으며, 김광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8 설비 매각에 따른 예상 수주 규모는 과거 L5, L6 5G LCD 라인 이설 사례를 통해 간접 추정이 가능하다”며 “관련 수주 규모는 7,000~8,000억원 수준의 대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납기까지 약 3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L8 수주만으로 연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동사는 2016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주)의 L5, L6, 5G LCD 라인 해체 및 이설 사업을 담당하며, 2020년까지 총 3,62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재·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

동사는 자체적인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공정용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형 제품부터 대형 디스플레이 제품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동사가 2021년 계약한 LCD 제조설비 해체건의 경우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소재·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와의 정합성이 검증된 제품이다. 만약, 중국 업체에 매각이 확정되어 이설을 진행할 경우 장비와의 정합성이 확인된 동사의 소재·부품은 이설이 완료된 업체에서 연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사가 이설을 진행하게 된다면 타사 대비 영업에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거래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확보된 LCD 제조설비 해체 수주로 2021년 4분기 매출 회복세 지속 전망

동사는 최근 2개년간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이설 연기, 미중 무역분쟁 등 비우호적인 전방산업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30.6%, 12.7%의 매출액 감소율을 나타내며 2020년 1,45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후, 2021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주)와의 LCD 제조설비 해체 계약에 힘입어 용역사업의 매출액이 확대되었고,



이에 2021년 3분기 매출 누적 매출 실적은 전년 총매출액의 85.9% 수준인 1,253.1억 원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2020년 흑자 전환 이후에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6%내외의 수익성 지표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는 소재·부품 매출은 고객의 가동율에 따라 약 1개월 전에 예상되는 물량 계획을 접수하고, 1주일 단위로 P/O를 접수함에 따라 장기적인 수주현황은 없으나, 2021년 9월 말 기준, LCD 제조설비 해체 등 용역 매출 관련 수주잔고는 567.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금년 4분기에도 매출 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